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포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육군 사관학교 세례식

4월20일(토) 오후2시 육사 교회당에서

우리교회에서는 민족의 75%이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원대한 기도의 목표인 비전 2020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실행방법의 일환으로 사병들의 진중세례식, 온차 나누기 운동 등과 함께 매년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세례를 집행하는 육사세례식을 가져왔다.

특히 육사세례식은 장차 이 나라의 육군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사병들을 통솔할 생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수하의 부하들을 통솔, 지도할 때 말씀으로 생활의 지표

삼고 본을 보이게 되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 육군사관학교의 세례식을 중히 여겨 전 교회 적인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세례식은 오는 4월20일(토) 오후2시에 육군 사관학교 교회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이종운 목사와 담당 교역자, 장로, 비전 2020 운동본부 위원, 찬양대원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집행하고 찬양을 드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 청년부 토요 연합 집회

매주(토) 4시 30분

지난 토요일부터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대학 · 청년부 연합으로 토요집회를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저녁 대학 · 청년부원들이 교회에서 신앙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 집회에는 대학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율동과 찬양 skit drama를 공연하며 대학 청년부 지도 교역자의 메시지와 함께 GBS를 통해 신앙을 키우며 친교를 나누고 있다. 토요집회는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가 청년들의 문화와 정서에 초점을 맞춘 집회로 젊은이들 자체로 교재를 제작하고 찬양팀을 신설하는 등 최 대한 젊은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획되었다. 많은 대학 · 청년부 젊은이들의 관심과 기도, 참여를 기도한다. 또한 주일 3부 청년 예배 후 갖던 기존의 청년부 모임은 '청년부 교회학교'로 변경되어 운영하게 된다.

기도합주단(C.O.P) 결성 현황

기도합주단(Concert Of Prayer)이 구성되어 향후7년 동안 함께 기도동역자가 되는 운동이 교회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결연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한가족 1팀 - 이영희 권사와 9명, 한가족 2팀 - 김광룡 집사와 7명,
- 한가족 3팀 - 박광식 집사와 4명, 한가족 4팀 - 이은진 집사와 6명,
- 한가족 5팀 - 안선희 집사와 10명, 한가족 6팀 - 김경희 집사와 9명,
- 한가족 7팀 - 김정희 권사와 8명, 한가족 8팀 - 윤운식 집사와 6명,
- 한가족 9팀 - 김석범 집사와 8명, 한가족 10팀 - 김영주 집사와 6명,
- 한가족 11팀 - 이자혁 집사와 4명, 한가족 12팀 - 김은태 집사와 8명,
- 한가족 13팀 - 유영준 집사와 8명, 한가족 14팀 - 오유식 집사와 5명,
- 한가족 15팀 - 장두현 집사와 6명, 한가족 16팀 - 조동완 집사와 7명,
- 한가족 17팀 - 손성실 집사와 8명

누가 몽골을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수1:3)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기 선교팀을 8월 5일부터 9박10일동안 몽골로 파송키로 하고 이번 주 목요일(18일) 이종운 목사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언어훈련, 팀웍 훈련 등 효과적 선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단기선교는 철저하게 선교지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사역(양,한방봉사)을 주축으로 이,미용사역, 어린이성경학교사역, 지역봉사사역 등을 통해 선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서 선교지의 문을 더 넓게 열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위원회에서는 전 분야의 지원자를 신청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사역에 헌신할 봉사자를 계속 찾고 있다.

또한 단기선교팀은 자비량 선교로 선교에 필요한 기초활동비(여비, 비상금)를 본인 이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교회의 선교팀은 계획된 선교일정동안 철저한 계획과 기도로 모든 일정을 진행함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까지의 왕복 여비는 55만 3천 원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성도는 오늘(14일) 2부 예배 후 605호실에서 첫모임을 갖게 된다.

마리아 여전도회 · 뵤뵤 여전도회 야외예배

마리아 여전도회와 뵤뵤여전도회는 각각 4월23일과 4월 18일 야외예배와 함께 기독교 유적지 탐방의 시간을 갖는다.

마리아 여전도회는 23일(화) 지원 교회인 전북 김제의 월송교회를 방문하며 뵤뵤 여전도회는 18일(목) 한국 기독교 순례자 기념관, 제암리교회, 두레마을 등을 순례할 예정이다. 출발은 모두 오전 9시30분 교회에서 한다.

4월 학습 · 세례식 안내

4월24일(수) I, II부 예배 시

4월 학습 세례식이 오는 4월24일(수) I,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오늘(14일) I, II부 예배 후 602호실에서 실시되며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오는 21일(주) 12시30분 606호실에서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치 못한 성도는 22일(월) 오후 7시 509호실에서 추가교육을 받으면 된다. 문답은 23일(화) 오후7시 602호실에서 실시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개역개정판 출 20:15)

You shall not steal (NIVEx 20:15)

뵤뵤 잊으셨나요?

부서가 있는 5, 6, 7층의 화장실 앞에, 혹은 화장실 안에 또 다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말 순례자 캠페인 이후 잠시 동안 것 같더니 말입니다.

부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화장실 앞이나 부서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지하 1층으로 가지고 내려가 분리 수거해 주세요. 여러분 부서의 쓰레기를 화장실 앞에 방치하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분의 수고를 끼치는 일이 됩니다.

입당할 때의 감격을 벌써 잊으셨나요? 항상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외의 방에서는 식사나 다과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퀴벌레와 쥐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시아서 강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 - 3절)



이중운 목사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도 장차 복음 진리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 인류에게 빛을 밝히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1.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1절).

이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며 이 말씀의 수신자는 시온입니다(사 60:14).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14절).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두운 땅에 엎드려 지냈으나 이제는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빛을 힘써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교회 자체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영광의 빛이며 교회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빛을 안고 비치지 못하면 교회는 앉은뱅이 같은 침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개인 신자에게 복음의 광명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빛을 많이 받은 교회일수록 어두운 세상에 더 많이 밝히 비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사해입니다. 사해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사해의 물은 햇빛에 증발이 되고 바다에는 소금덩어리만 남고 기조차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해는 도무지 물을 다른 곳으로 주지를 않아 결국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사람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또 내 것을 남에게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나 개인 신자가 복음의 광명을 세상에 비추려고 하면 먼저 신자 자신이 믿음을 굳게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말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날 때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을 보고 감동을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는 세상 앞에 내어놓을 가견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허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변화된 가견적 모습을 세상에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개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온 천하에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 5:15).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빛을 힘써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교회 자체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영광의 빛이며 교회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빛을 안고 비치지 못하면 교회는 앉은뱅이 같은 침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개인 신자에게 복음의 광명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빛을 많이 받은 교회일수록 어두운 세상에 더 많이 밝히 비쳐야 합니다.

뜨게 하신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라는 것이고 불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가견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견적인 모습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천국의 sign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천국의 지소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회에 방해나 주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므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는 교회에 영광을 빛을 비추주십니다.

우리교회를 중심으로 100m 반경을 갖고 원을 그린 후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교회를 물어보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빛을 비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은 교회나 성도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빛은 기회가 주어질 때 비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빛은 열방과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상태와 무관심으로부터 각성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회생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두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1절).

하나님은 '내가 왔다고 하시지 않고 빛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

또는 빛을 말합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케보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 하시어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아홉 번째 재앙으로 땅에 어두움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습니다(출 10:23). 어두움은 죄로 인한 영성을 말하고 빛은 여호와와의 임재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의 영광입니다.

장래의 일을 과거사(이르렀고, 임하였음)로 말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의 영광은 메시아가 오시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3. 어둠에 빛을 비추면 이방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3절).

인간이 타락한 후 그 벌로 세상은 어둠(죄악)이 점점 더 승하여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광명, 곧 구원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점차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 그 광명이 어두움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이 빛이 있는 교회로 나옵니다. 생명체는 빛을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뿐입니다.

오늘 북한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빛이 비칠 때 전 세계의 열방과 열왕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그 빛의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사 49:23).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들어 복음을 통해 구원에 동참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우선 되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있는 곳에서 은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확실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한 교회 섬기기를 다짐하며

찬양하고, 나누고, 달리고, 기도한 축제의 날

One in the Spirit Festival

지난 4월 5일, 베델하우스의 믿음, 소망, 사랑, 화평의 네 장막은 일찍부터 서울교회 성도들로 붐볐고 320매의 이름표는 품절이 되어 지금으로 80매를 제작해야만 했다. 출발지인 교회 앞에서 버스 두 대를 보내고도 많은 분들을 태우지 못하자 1교구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 차를 가져와 수송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교회 한가족들의 저력이었다.

당회원 및 교회 일꾼들이 한가족들과 서로를 소개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사한 날씨처럼 새가족부 제1회 한가족축제는 조금은 흥분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병상에서 투병생활을 하하던 박철훈 장로께서 참석하시어 한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제1부 예배와 찬양 축제

오전 10시 김세재 장로(새가족부 부장)의 사회로 감사예배가 시작되고 지혜영 전도사님의 기도와 김정애 교사의 특송이 있는 후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해졌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첫째, 용서하는 자이며 둘째, 이웃을 섬기는 자이며 셋째,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요지의 감명 깊은 말씀을 들으며 참석자 전원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였고 이날 장소를 제공하신 오정수 장로께서 환영사를 통해 베델하우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져 있는 기도와 안식의 장막이 될 것이라며 한가족들을 환영하였다.

글로리아 중창단의 힘찬 찬양 인도로 벌어진 찬양의 축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당회원들의 적극적인 율동시범은 축제의 분위기를 힘껏 고조시켰다. 기념식수 시간을 가지고 정인주 집사의 촬영으로 전체 기념촬영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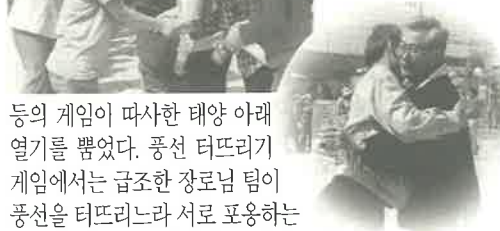
제1회 한가족 축제

1부 축제를 마치니 11시 30분.

2부: 나눔과 교제의 축제

어느 새 마당 세 곳에 풍성한 부페 식사가 마련되고, 이성득 목사님의 감사기도로 점심 식사를 시작했다. 예상 인원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는데도 초대하신 이영희 권사의 예비한 음식과 서울교회 봉사자들의 민첩한 준비로 350명이 넘는 대가족들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떡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나눔의 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어서 김광룡 집사의 진행으로 원을 지어 돌면서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과 믿음, 소망팀 대 사랑, 화평팀 연합 체육대회가 벌어졌다. 풍선 터뜨리기 게임, 풍선 터뜨리기, 이인삼 각 경기, 족구, 피구



등의 게임이 따사한 태양 아래 열기를 뽐냈다. 풍선 터뜨리기 게임에서는 급조한 장로님 팀이 풍선을 터뜨리느라 서로 포옹하는 모습이 폭소를 자아냈다. 응원전도 치열했는데 김태산 성도가 이끄는 믿음, 소망 연합팀의 응원은 수준급이었다. 결국 믿음, 소망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3부: 기도와 연합의 축제

기도합주단(Concerts of Prayer) 발족에 앞서 봉원빈 어린이의 감격찬양이 앙골을 받기도 했고 이어 오랜 기도로 초청하고 싶었던 몇 분들이 소개됐다. 새가족부 교사

들이 중심이 되어 20여명의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날 네 분이 초청에 응하였고 그 중 세 분은 교회라고는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분들이라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양호선 집사의 남편이신 김봉수 성도, 양호경 성도의 남편 권영욱 성도, 이태정 집사의 남편 임병석 성도, 그리고 오은숙 집사의 남편이신 봉삼중 성도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계속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이날의 휘날레를 장식하는 COP(기도합주단)를 결성하기에 앞서 김세재 장로가 '기도 합주단을 만들어 7년 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지속하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 떼들이 영하의 겨울 밤을 함께 지내는 것과 같다. 얼어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몸을 부비다 보면 때론 상대를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상대의 가시로 찔려 피를 흘리는 아픔도 있겠지만 중국에는 상처가 회복되고 따스함으로 능히 추위를 이겨 내는 승리의 합주단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먼저 각자의 기도제목과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렸다. 이어서 장로님들과 교회 일꾼들을 중심으로 17개의 COP가 만들어 졌고 각 팀끼리 서로의 기도제목과 소개하고 각 팀의 간사가 선출되어 매주 15분간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나누었다. 함께 엮은 기도의 그물 안에서 펄떡거릴 은빛 고기떼들을 상상하면서 7년 후에 다시 모여 COP 사역보고회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새가족부 수료자인 '당신은 시냇가에 울며 부르며 서로를 아낌없이 축복하는 순서도 가졌다. 참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원을 그리고 '사랑의 종소리'를 부른 후 기도로 3부 축제를 마치니 오후 4시 15분이었다. 한 성령 안에서 한가족 됨을 확인한 'One in the Spirit Festival' - 매년 이 찬양



있기를 기도한다. 편집부(이운진)

김동두, 박두선 성도(8교구)

지상에서 완전한 목회도 완전한 교회도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부는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 천국에 가까이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 보았으나 완전한 목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그렇고, 새 교인들을 관리하는 새가족부에서 받은 은혜들이 그러하며, 4월 5일 있었던 한가족축제를 참가하고 나서 더욱 그러합니다.

실은 4월 5일 친지들과 중요한 선약이 있었는데 새가족부로부터 정중한 초대장을 받고 또 교사들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친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축제 장소로 갔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교회 일꾼들이 반갑게 맞아 주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 모임인가를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예배와 찬양, 풍성한 야외식탁, 한강 변의 산책, 승패를 초월한 화합의 체육대회, 앞으로 7년 간 함께 할 기도동지들이 만든 기도합주단의 발족 등 이날의 축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진 작은 천국의 잔치였습니다. 한 성령 안에

서 하나되는 축제라 하여 'One in the Spirit Festival'로 명명한 한가족축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우리들을 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새가족부 교사들에게 또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교회에서 장례식을 가질 우리 부부는 매일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다짐합니다.

인선의 성도(1교구)

4월5일 한가족 축제가 개최되는 아침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다. 온 가족이 교회에 도착하자 우리를 데려갈 교회버스는 만차가 되어 있었다. 한가족 축제의 열기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야외에서의 식사와 식사 후 양평 강가 산책 및 공놀이는 새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마지막 순서로 기도합주단(Concert of Players)을 구성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6가족이 기도제목과 각각 제출하고 또한 다른 가족의 기도제목도 기록하여 하루 15분간 7년

동안 기도하기로 하고 매주일 모임을 갖기로 약속했다. 기도 제목을 쓰면서 진정 이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 주실까 하는 의의도 했다. 또한 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 과연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모임이 조직되어 활성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대 교회는 이러한 작은 조직들이 살아 움직일 때 대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증가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운동으로 사랑의 띠를 형성하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공유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합주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도운동이 온 교회에 확산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 드린다.

고3을 위한 기도결연

최규초 집사(고등부 교사)

고등부 3학년들을 위한 기도 결연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매일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대학부, 고2학생 모두는 고3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능과 취업준비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도제목은 신앙생활, 주일 성수가 단연코 우선이었고 그 다음 진학과 취업을 위해 학교 수업과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최선의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모양이 다른 질그릇과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비전에 대한 간구와 감사 예배의 삶이 영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3학생들과 기도결연을 맺은 이들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빠짐없이 정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좋은 결실을 얻어 모든 학생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결연자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칭찬 받는 아름다운 성도

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요?



박재원 (고등부 3학년)

열 아홉. 꽃다운 나이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고3. 공부 자체가 주는 중압감보다는 우리를 설명하는 이러한 정의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리를 위해 지난 3월 17일 고등부에서 고3기도결연회가 있었다. 이미 서울교회 고등부 전통으로 자리잡은 고3기도결연회. 예년에 언니 오빠들이 기도결연회를 할 때는 솔직히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사실이었지만, 막상 내가 고3이 되고 보니 기분이 남달랐다. 우리를 위해 기도 해 주시려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 또 대학부의 선배들까지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다.

고3 지체 한 명, 한 명마다 장로님부터 선배들까지 사랑과 기도의 따로 하나가 되어, 기도제목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실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교회에서의 청년부는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청년부는 지난 4월 첫 주부터 시작된 토요집회를 시발로 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토요 집회장소는 웨스트민스터 홀, 60여일 동안의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는 반갑고도 곳은 날씨에도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악기를 정리하고 강단을 정리하는 등 스스로 모든 준비를 하는 모습은 충분히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든직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토요 집회첫날 비가 내려 많은 우려를 하였지만 삼삼오오 모여든 우리교회의 젊은이들의 수가 100명을 넘어서며 이 모든 우려와 안타까움을 일소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젊은이들 바로 이들의 올바른 신앙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발전케 하며 이 나라의 진정한 동량이 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청년부원 각 지체들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주님께 일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도해 주시는데, 그걸 잊고 나약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바로 같았다. 기도 많이 해 주시겠다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던 권사님. 힘들 때 연락하면 밥을 사주셨던 대학부 오빠. 정말 모두가 감사한 분들이다.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담대히 서기로 다짐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매달릴 것이다. 대학이 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영광 돌리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여 승리하는 내가, 우리가 되겠다.

우리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로 자라는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9일(금)비전2020기도동역자 모임에서 설교한다. 20일(토) 육사세례식을 집례한다.
- 개업 : 장두현 집사 (1교구)서주 시티 건설 구리지사 031-554-9700
- 회혼 : 박래원 집사, 조봉환 권사 (4교구 12다락방) 결혼 61주기 4월 18일 (목) 6시
- 문영숙 성도(9교구이순녀 권사 장녀) 미국 광고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이사: 이일영 · 이선아성도 12교구(031-272-0453) 황정옥집사 · 주경자권사 12교구(031-722-3256) 박재영집사 · 이경자집사 12교구(031-710-5049) 권혁진 집사 · 이양심 집사 7교구(937-1931)
- 어린이 용 놀이기구 기증: 최형렬 집사 김찬진 집사 가정(2교구)

☞ 금주의 식사제공: 조영식 집사 유명석 권사 가정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21학기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박철훈 장로, 이경희 권사 가정(11교구) 장두현 집사, 이미승 집사 가정(1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한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는..

최요섭(서울교회 청년부 총무)

서울교회와 함께 올해 11살이 되는 젊은 청년부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모임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진로 혹은 결혼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계기들이 놓여있는 시기에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거룩한 젊은이들의 처소입니다.

청년부는 서울교회에서 허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로, 교회 내 사역의 다양한 부분에 많은 인원들이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교회에 젊음과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회원들이 교회학교, 찬양부서, 멀티미디어단, 순례자 간행 등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자리는 87개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2개 이상의 곳에서 봉사하는 지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출석인원 가운데 신입 회원 7명을 제외한 청년부원의 70% 이상이 서울교회 내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기도합주단(COP)의 성공적 조직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거리